

용인시 수돗물 공급 일시 중단

용인시는 기흥배수지 송·배수로 간 동안 수돗물 공급을 중단한다. 단수 지역은 기흥읍, 구갈리, 신갈리(삼미지역 제외), 신역동과 구성면 상하리, 동백리, 중리 일원이다.

환경미화원 위한 음악회 개최

시민들이 쾌적한 거리환경 속에서 출근할 수 있도록 위험한 차도에서 묵묵히 일해온 데 대한 위안과 격려를 통해 그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함께 사는 사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개최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을 위한 환경음악회가 지난 13일 열렸다.

가격파괴시범거리 조성

서울시에서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고를 해소하기 위해 각 구마다 가격파괴시범거리를 조성토록 했다.

현재 동대문구 7개소에 총 58개업소가 조성완료 됐으며, 이들 업소는 주로 음식집이나 미장원 등이다. 인하품목에 대한 인하율은 평균 15% 정도이다.

한국예총 용인지부 어린이 합창단 모집

한국예총 용인지부는 오는 31일 까지 용인 소년소녀합창단원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용인 소재학교에 재학중인 18세 이하 어린이를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8백명 구직 신청자 중 3백 12명 취업

수원시는 IMF 한파로 인해 여러 구인난을 해소하고, 정리해고로 실업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직한 주민의 구직난 해결을 위해 지난 19일 수원시청 대회의실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원 및 인근 지역 20개 기업체에서 3백명의 구인요청이 있었으며 8백명의 구직 신청자 중 3백 12명이 상담을 통해 취업되었다.

행사장에는 참가업체별 상담코너가 마련되어 구직희망자와 업체의 일대일 면담이 이루어졌다. 한편, 시청 행정종합정보처리센터 내 취업알선 창구에서는 이날 참가한 사람들을 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자은정 기자)

한마음 봉사단 '사랑의 헌혈운동'

지난 20일 본관앞에서 61명 동참

의료원의 한마음봉사단이 창립 1주년을 맞아 지난 20일부터 '사랑의 헌혈'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마음봉사단의 헌혈운동은 의료원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어 왔으나, 더 많은 이들의 동참을 위해 본관앞에서 직접 실시했다. 평소 헌혈을 하는 사람은 하루 10여명 남짓이었으나, 지난 20일 헌혈 운동을 실시한 결과 61명이라는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구성된 한마음 봉사단은 자체회미로 운영하고 있으며, 철원에서 무료봉사도 계획 중이다.

동대문구 여성고실 접수

여성의 자아실현 및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동대문구 여성고실이 오는 4월 1일부터 실시된다.

3개월간 열리는 이번 고실에는 미용, 의류수선, 홈패션, 제과제빵 등의 강좌가 개설되며 접수마감은 오는 30일까지이다.

심장병어린이 무료검진

용인시 보건소는 오는 4월 1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심장병어린이 무료검진을 실시한다.

장안사회복지관 노인무료 진료서비스

장안종합사회복지관(242-7564)에서는 매일 한번씩 노인들에게 무료 의료진료를 실시한다.

한방 진료는 매일 마지막 토요일(3월 28일)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반까지, 정형외과 진료는 셋째주 수요일(4월 15일), 내과 진료는 첫째주 금요일(4월 17일), 물리 치료는 첫째주 토요일(4월 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한다.

에서 정기적으로 각 지역을 순회하는 봉사 검진으로 평소 심장질환을 앓았거나 질환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검진항목은 진찰, 심전도 검사, 방사선 검사 등이다.

미혼 동거부부를 위한 용인시 합동결혼식 거행

용인시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동거하는 부부들을 위한 합동결혼식 신청자 접수를 오는 4월 30일까지 받는다.

먼저 접수된 12쌍을 대상으로 오는 5월 중에 합동결혼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시청 사회복지과(0331-30-1262, 1264) 또는 읍면동 사회복지계로 문의하면 된다.

성공적인 인생설계를 위해 대학생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시스템적 사고를 인성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잘 할 수 있고, 잘 해야 자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수정 기자)

인터뷰 - 사회발전 시스템연구소장 지만원씨

시스템 없으면 미래도 없다



시스템적 사고란 무엇인가

한 마디로 시스템이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음식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침이 분비되고 위액이 분비되는 것처럼 여러 개의 구성요소들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유기체를 시스템이라고 한다. 시스템적 사고는 결국 문제를 논리적이고 구조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시스템적 사고를 적용해 보았을 때 현 경제위기의 원인과 대책은

우리에게는 단편적인 원인과 철학이 난무할 뿐 방향을 예방하는 시스템이 없다. 시스템이 없으므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 기업은 경영진과 주주진이 분리되어 있어 주주진이 공인 회계사를 고용해 항상 경영진을 감시하는 체계가 자리잡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인회계사들이 하는 일은 가짜 재무제표를 만들고 탈세를 돕는 일이다. 우리 기업의 주주진과 경영진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영의 투명성이 보장될 리 없다.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는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정부는 일단 작고 강해져야 한다. 시스템 노쇠를 유지하고 팀조직에 의한 공무원 줄이기, 지방정부 축소, 세계개화, 예산제도 현대화 등을 통해 GDP의 60%를 납품하는 정부에서 GDP의 25% 정도를 효율적으로 쓰는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남은 예산으로는 고용창출을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면 좋을 것이다. 실업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실업 급여를 언제까지 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제일 좋은 것은 관광산업이다. 한강을 개발하면 세계적인 관광지 가 될 수 있다.

'통일의 지름길은 영구분단이다' 라는 독특한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나라의 통일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야 한다고 보는가

통일이 되려면 남북의 정치집단 중 하나는 망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 50년동안 서로 통일 안달하려고 서로 균비증강하고 갈등했던 것 아닌가? 홍콩을 중국 체제로 버린다고 생각해 보라. 가능하겠는가? 서로가 살던 방식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균축이다. 서로 쓸데없는 낭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상호 불가침을 약속하고 사회문화적 교류가 원활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통일이야.

단국대 부도도 대학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보는가

우리들의 인재를 만드는 교육은 이제 지방대학이다. 물론 다양한 교수들이 존재해야하지만 학생들도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에 몰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종합적인 평가방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입학은 쉽지만 졸업은 어려운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성공적인 인생설계를 위해 대학생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시스템적 사고를 인성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잘 할 수 있고, 잘 해야 자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수정 기자)

대상으로 하며 소정원서를 용인 예총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면접 일정은 개별 통지한다. (문의: 0335-37-1334)

효원의 종각 연중 개방

수원시는 오는 4월부터 팔달산 정상에 위치한 약 12.5톤 무게에 구경 2.15미터, 높이 3.54미터의 '효원의 종각'을 연중 개방하기로 했다. 관람객에게 타종의 기회를 제공 하는 이번 개방으로 인해 단체 관광객의 경우 8인 1조로 3회 타종, 그 외 소수일 경우 직정인원으로 3회 타종할 수 있다.

인터뷰 - 청량리 소방서 소장 장재철씨

“불 속을 넘나들며 보람을 느껴요”

끈두세워야 한다. 언제 어디서 화재가 발생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예방에 만전을 기해도 화재는 발생한다. “94년 노원소 방사에서 근무할 때 워싱턴 카피제 지하 2층에 불이 났는데, 연기가 시야를 가려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많았습다. 결국 7명 정도의 인명 피해를 내게 되어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장재철씨는 어느새 나이가 마흔 다섯이다. “그간 쌓아온 경험때 문인지 초조함이나 불안감은 거의 없지만, 화재현장에서의 격렬한 활동을 버려내려면 평상시에도 꾸준한 자기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매 2번마다 건강진단은 물론이고, 휴일에도 등산이나 헬스 등을

통해 체력관리를 한다. 규칙적인 식사관리는 기본이다. “만약 내 아이들이 소방수가 되고 싶어요 경우라도 자신있게 권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위험부담이 큰 만큼 얻는 보람도 크다. 서울시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점, 특히 일반 사람들은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해낸다는 자부심은 그 어떤 것에도 비할 수 없다고 한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화재예방과 화재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팸플리에 익혀두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소방기관에만 의존해서 안되죠”라며 평소 안전의식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수만 기자)

석·박사 학위 논문 공개발표

학과	이름	논문제목	일시	장소
과학	김지성	효원에 미치는 영향	3.27	본관 세미나실
	김지성	효원에 미치는 영향	3.27	본관 세미나실
	김지성	효원에 미치는 영향	3.27	본관 세미나실
	김지성	효원에 미치는 영향	3.27	본관 세미나실
의약	김지성	효원에 미치는 영향	3.27	본관 세미나실
	김지성	효원에 미치는 영향	3.27	본관 세미나실
	김지성	효원에 미치는 영향	3.27	본관 세미나실
	김지성	효원에 미치는 영향	3.27	본관 세미나실
공학	김지성	효원에 미치는 영향	3.27	본관 세미나실
	김지성	효원에 미치는 영향	3.27	본관 세미나실
	김지성	효원에 미치는 영향	3.27	본관 세미나실
	김지성	효원에 미치는 영향	3.27	본관 세미나실
경영	김지성	효원에 미치는 영향	3.27	본관 세미나실
	김지성	효원에 미치는 영향	3.27	본관 세미나실
	김지성	효원에 미치는 영향	3.27	본관 세미나실
	김지성	효원에 미치는 영향	3.27	본관 세미나실